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Online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김수정 (Sooj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대학도서관 웹사이트를 조사하여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조사된 100개 대학 중 14개 대학만이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구축은 초기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주제가이드들은 내용 구성면에서 볼 때 접근성, 포맷의 일관성, 자원통합성 영역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주제 다양화, 이용자 교육, 검색 영역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주제가이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신속한 정보자원으로의 접근, 주제 특화된 이용자 교육, 사서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online subject guides in Korean academic libraries and suggests improvement. Through the examination of 100 academic libraries' Web sites, only 14 online subject guides were identified, showing that the development of online subjects guides in Korea is still in infancy. The examined online subject guides were evaluated as high quality in terms of accessibility, integra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format consistency, but low quality in the provision of specialized subjects, user instruction, an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s. An online subject guide should be a one-stop service that provides fast access to information resources along with subject-specialized user instruction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librarians.

키워드: 주제가이드, 연구가이드, 대학도서관, 주제전문사서, 온라인 서비스
subject guide, research guide, academic libraries, subject specialists, online service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인문영상연구소 연구원(kimsoojung@jbnu.ac.kr)
■ 논문접수일자: 2012년 11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2012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2월 6일
■ 정보관리학회지, 29(4), 165-189, 2012.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4.165]

1. 서론

최근 들어 대학의 학술적 기능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주제전문사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재영, 2009). 주제전문사서제에 대한 높은 요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으며(노영희 외, 2008) 주제전문사서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 연구 등이 수행되면서(Tennant et al., 2006; 노영희 외, 2008) 이미 도서관계 내에서 주제전문사서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주제전문사서제 도입의 당위성을 넘어서 실제적인 주제전문 서비스 전략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제전문서비스의 하나인 온라인 주제가이드(subject guides)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정보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subject guides 혹은 '주제 문헌 안내'는 "어느 특정 분야나 테마에 대해 연구나 조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 연구자, 도서관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그 분야나 테마의 연구법이나 연구 동향, 기본 문헌, 주요 잡지, 이차 자료, 문헌 탐색 방법이나 도서관 이용법 등을 해설한 참고 도서"라고 정의된다(일본도서관정보학회, 2011). 현대적인 개념의 주제가이드는 1972년에 Canfield가 서지, 색인과 초록, 청구번호 등을 기술한 인쇄물을 '패스파인더(pathfinder)'라고 칭하면서 처음 소개

되었고(Canfield, 1972)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주제가이드가 등장하면서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s), 연구 도구(research tools), 전자도서관 가이드(electronic library guides or e-guides), 웨블리로그라피(webliographies), 주제 포털(subject portals)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Tchangelova & Feigley, 2008).

현재 국내외 여러 관중의 도서관에서 주제가이드가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대학은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이용자가 특정 주제를 가지고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주제 서비스를 확립시키는데 주제가이드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북미 및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구가이드 제공 현황을 비교한 최상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북미대학도서관 모두가 연구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에 국내에서는 불과 3개 대학만이 온라인 상에서 주제별 가이드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희는 북미대학도서관의 활발한 연구가이드 운영이 주제전문사서제의 정착에서 비롯한 것임을 주목하면서 국내에서는 아직 주제별 연구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주제전문사서가 대학도서관에 점차 도입됨에 따라 향후 대학도서관이 주목해야 할 분야가 바로 연구가이드의 개발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환경에서 온라인 주제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구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주제가이드 구축 현황과 내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주제가이드

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주제가이드의 개념과 특징

주제가이드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어 왔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Tchangalova & Feigley, 2008).

주제가이드의 장점은 수집된 정보자원들이 주제전문가에 의해 평가, 분류 및 기술되어지기 때문에 검색엔진에 비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이 제공된다는 것이다(최상기, 2004). Morville & Wickhorst(1996)는 웹블리오그래피 구축시에도 웹사이트들을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서업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마련된 엄격한 장서개발 원칙에 따라 선별,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주제가이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자원 중에서 특정한 주제 분야의 필수적인 정보자원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을 정보 과잉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연구 시작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주제가이드가 갖는 다양한 잇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주제가이드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하면서 주제가이드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학부생들의 경우 학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해당 강의가 속한 적절한 학문 주제를 선택하지 못해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하거나, 정보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주제가이드에서 발견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이미화, 2010). 둘째, 학생들은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Ouellette, 2011; Warick et al., 2009) 학문분야별로 정보제공을 하는 주제가이드가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Reed & Gibbons(2004)과 이미화(2010)는 학문보다 강의나 강의과제별 정보를 원하는 학부생들의 인지 모델(mental model)과 주제가이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주제가이드인 강의별 가이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강의마다 가이드를 구축하는 것은 주제별 가이드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5) 대학도서관에서 강의별 가이드보다 특정 학문분야 내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가이드를 구축하는 작업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razze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주제가이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주제가이드가 가지는 다양한 잇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2 주제 가이드의 분석 기준

국내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 분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주제가이드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이

〈표 1〉 국내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 분석 기준

분석 범주	분석 항목	세부 항목
유용성	명칭	도서관 내, 도서관 사이의 명칭의 일관성
	접근성	도서관 홈페이지로부터의 경로와 클릭수
	포맷의 일관성	
	최신성	갱신주기, 갱신날짜, 갱신항목 표기
	키워드 검색엔진 제공	
내용	사서정보	이름, 연락처, 사진
	주제의 다양성	주제의 수, 종류, 범위
	정보자원의 종류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인쇄물, 웹사이트, 교내출판물 등
	배열체계	알파벳순, 주제별, 기준 없음
	이용자 교육	개별 정보자원에 대한 주석, 일반적인 탐색 전략에 관한 교육, 주제 중심 이용자 교육

기준들은 크게 유용성, 내용의 두 범주로 나뉘며 10개의 분석 항목을 포함한다. 유용성 범주에는 주제가이드가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있는 명칭을 사용하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포맷이 일관성이 있는가, 키워드 검색 엔진이 제공되는가 등의 요소가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척도가 되므로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범주에는 주제의 다양성, 정보자원의 종류, 배열체계, 이용자 교육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주제가이드의 이용자가 학습하게 되는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표 1〉에 제시된 10개의 분석 항목과 관련된 세부 항목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2.1 명칭

명칭은 이용자가 주제가이드의 내용을 가늠

하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최초의 단서이므로 내용에 적합한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도서관 내, 그리고 도서관들 사이에서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도서관 전문용어를 피해야 한다(함연금, 박준식, 2008). 20개 북미 대학도서관 주제가이드를 분석한 Dunsmore(2002)는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s)’와 ‘주제가이드(subject guides)’라는 명칭이 각각 40%, 30%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내고 이 중에서도 주제가이드 내 정보자원이 주로 토픽(topic)에 의해 조직화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주제가이드’의 사용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내, 그리고 도서관들 사이에서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명칭이 얼마나 일관성있게 표현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2.2.2 접근성

‘주제가이드는 이용되기 전에 먼저 접근되어야만 한다’는 Dunsmore(2002)의 말처럼 주제가이드는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

며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Dahl, 2001). 미국 내 9개의 경영학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45개의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조사한 Dahl(2001)은 조사 대상 가이드의 대부분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네다섯 번의 클릭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제가이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주제가이드 페이지로의 경로와 클릭수를 조사하여 접근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2.2.3 포맷의 일관성

한 도서관에서 다수의 주제가이드를 구축할 때 일관성있는 포맷을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주제가이드가 같은 도서관에 속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Kapoun, 1995; Dahl, 2001; Morris & Bosque, 2010). 최상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북미 대학도서관의 절반 정도가 스프링웨어(Springshare)사의 상용 시스템인 리프가이드(LibGuides)¹⁾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bGuides는 도서관 가이드 제작, 관리 톨로써 회원 도서관에게 온라인 주제가이드 저작 톨과 각종 부가 기능들(키워드 검색 엔진, 업데이트 날짜 자동 표기, 외부 정보자원으로의 링크 삽입 등)을 제공하여 손쉽게 주제가이드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대학 혹은 여러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일관성있는 포맷/기능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콘텐츠 개발에만 힘쓰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도서관 내에서 제공되는 주제가이드들 사이의 포맷의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2.2.4 최신성

모든 주제가이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오래된 정보자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성은 온라인 주제가이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Cox(1996)는 주제가이드의 유용성 향상을 위한 원칙을 설명하면서 그 중 하나로 최신성 유지를 꼽았고 함연금과 박준식(2008)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가상참고서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최신성을 제시하면서 갱신주기, 최종갱신일, 갱신항목 표기를 세부 항목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 세 가지 항목을 조사하여 대학도서관이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2.2.5 키워드 검색 제공

주제가이드는 정보자원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조직적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브라우징 검색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용자들은 구글과 같이 편리한 키워드 검색을 선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주제가이드도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탐색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키워드 검색엔진 제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1) <<http://springshare.com/libguides/>>.

2.2.6 사서정보

사서 정보는 도서관 홈페이지 내 '도서관 소개' 섹션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별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작성자/책임자를 표시함으로써 주제 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탐색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사서와의 신속한 소통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한 항목으로써 사서의 이름, 연락처, 사진 등제 여부를 조사하였다.

2.2.7 주제의 다양성

주제의 다양성이란 각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소수의 주제가이드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세분화된 주제에 따라 다수의 주제가이드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광범위한 학과별 주제가이드보다는 세분화된 주제 혹은 강의 과제와 연계된 주제 중심의 가이드가 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Ouellette(2011), Staley(2007), Courtois 등(2005)의 이용자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존의 주제가이드 내에 새로운 세부 주제 분야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가이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학도서관 내에서 제공되는 주제의 수, 종류, 범위를 조사하였다.

2.2.8 정보자원의 종류

주제가이드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웹사이트, 인쇄물 등 광범위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새로운 정보자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Lyons & Kirkwood(2000)는 이용자들이 정보자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한 주제에 관한 모든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이드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원의 통합성을 제시하였다. 이후에 Kim & DeCoster(2011)는 경영학 도서관 웹사이트들을 분석하면서 자원의 통합성을 기준으로 삼았고 자원의 통합성이 높을수록 이용자에게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각 주제가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자원의 종류를 조사하여 자원의 통합성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2.9 배열 체계

주제가이드의 주목적이 정보자원의 접근을 촉진시키고 탐색 전략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정보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하고 배열하는가의 문제는 주제가이드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Sowards(1998)는 가상참고서가의 정보자원 조직 체계를 알파벳순 정렬, 주제 분류,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 분류로 구분하였고 Kim & DeCoster(2011)는 알파벳순, 정보자원 형태별 분류, 주제별 분류, 그리고 교육 프로세스(instructional process) 형태로 구분하였다. 알파벳순 정렬 방식은 특정한 정보자원을 이미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육 프로세스는 연구 방법을 서술하면서 중간에 적절한 정보자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교육적 효과가 높다. Jackson & Pellack(2004)이 112개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분석한 결과, 61%이 대학이 알파벳순으로 정보자

원을 배열하였고 30%가 알파벳순 외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9%가 혼합된 방식을 차용하고 있었다. 혼합 방식은 예를 들어 알파벳순으로 정보자원을 나열하다가 중간에 임의대로 새로운 자료들을 첨가함으로써 배열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특정한 정보자원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주제가이드 목적에 적합한 배열 체계를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주제가이드의 정보자원 배열 체계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2.2.10 이용자 교육

정보자원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주제가이드의 또 하나의 주요 기능은 도서관 정보자원과 탐색 전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Dunsmore, 2002). 즉 주제가이드는 단순한 정보자원의 목록이 아니라 도서관 자료의 이용법과 탐색 전략에 대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이용자 교육의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김태경(2005)은 주제전문사서가 제공하는 주제 중심의 이용자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법 안내, 주제 분야에 따른 정보원에 대한 소개와 자료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 주제 분야의 인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주제가이드에서 제공되는 이용자 교육의 종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정보자원 제공 외에 교육적 요소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3. 연구방법

3.1 온라인 주제가이드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은 국내 대학도서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정보통계시스템²⁾에서 제공하는 대학도서관 통계 데이터 내에서 '전자서비스/전자서비스 이용 현황' 항목의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상용 DB 검색건수'가 높은 순으로 100대 대학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 항목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전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고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높은 도서관일수록 온라인 주제가이드가 구축되었을 때 이용률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최초로 선정된 100개 대학 리스트에서 한 대학에서 하나 이상의 도서관이 포함된 경우에는 중앙도서관만을 데이터에 포함시켰으며 하위 순위에 있는 대학 도서관을 리스트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100개 대학도서관 리스트를 바탕으로 도서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전에 설정된 기준(〈표 1〉 참조)에 따라 분석하였다.

3.2 주제전문사서제 실행 여부 조사

주제가이드 운영과 주제사서제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 100개 대학 도서관에 전화로 문의를 하여 주제전문사서제의 현재 실행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담당 사서의 수를 확인하였다.

2) 학술정보통계시스템. 통계검색.

〈http://www.rinfo.kr/stat/statSearch.do?sub=uni&OWASP_CSRFTOKEN=5EHZ-SWT6-3Y2P-FG49-7KYW-FBSO-28TA-JDC7〉.

4. 국내대학교 현황 분석 결과

4.1 개괄적인 현황

조사 대상 100개 대학 중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총 14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대학 주제가이드의 명칭과 사이트 주소는 <표 2>와 같다.

주제전문사서제와 주제가이드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제전문사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을 조사한 결과 100개 대학 중 36개 기관이 주제사서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36%). 이 통계는 도서관 장서를 주제별 자료실로 구분하고 각 자료실을 담당하고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주제별 조직을 포함한 것으로 최근에 실시된 노영희(2009)의 연구에서 185개 국내 대학도서관 중 27%인 50개 도서관이 주제

별 조직을 형태를 갖추고 있던 것에 비해 9%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주제전문사서제 운영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도서관도 4곳에 달해서 앞으로 주제전문사서제를 실시하는 도서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주제담당사서 수를 몇 명이나 배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명 이하를 배치하고 있는 곳은 33%, 4~6명 33%, 7~9명 11%, 그리고 10명 이상인 곳도 22%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제를 실행하고 있는 36개 도서관 중 11개 기관만이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제사서제를 실행하지 않는 기관 중에서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3곳에 불과하여 주제전문사서제를 실행하는 기관에서 주로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2> 온라인 주제가이드 제공 현황

학교명	명칭	URL
경희대학교	Research Guide	http://libguides.khu.ac.kr/
단국대학교	주제전문사서	http://lib.dankook.ac.kr/local/html/professionalServicesGuide
부산대학교	학과별 학술정보가이드	http://pulip.pusan.ac.kr/guide/Static.ax?page=Service10
서강대학교	주제가이드	http://library.sogang.ac.kr/subjectguide/main
서울대학교	학과별 Guide	http://library.snu.ac.kr/ResearchSupport?id=researchguide&file=BrowseDepartments&pCategoryId=BROWSE_DEPT&category=BROWSE_DEPARTMENTS
성균관대학교	주제별서비스	http://lib.skku.edu/index.ax
승실대학교	학과리에중서비스	http://oasis.ssu.ac.kr/guide/Static.ax?page=Sub3701
신라대	학과별 참고정보원	http://library.silla.ac.kr/
연세대학교	Subject Guide	http://library.yonsei.ac.kr/main/sub.do?menuCode=0202
울산대학교	Research Guide	https://library.ulsan.ac.kr/guide/Static.ax?page=ReSearch5
이화여자대학교	주제가이드	http://lib.ewha.ac.kr/subject/subjectMain
인하대학교	Research Help	http://lib.inha.ac.kr/rh/rh_main.asp
포항공과대학교	주제별리소스가이드	http://libguides.postech.ac.kr/
한국과학기술원	주제별리소스가이드	http://libguides.kaist.ac.kr/

4.2 온라인 주제가이드 분석 결과

4.2.1 명칭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주제가이드를 제공하는 14개 기관은 무려 12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제가이드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제’나 ‘학과’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칭이 대부분이었지만 ‘Research Help’와 같이 다소 모호한 명칭도 사용되고 있었다. 신라대학교는 각 주제별로 단행본, 정기간행물, 웹사이트, 참고도서 등 다양한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면서도 ‘학과별 참고정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참고도서만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연세대의 경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에서 ‘Subject Guide’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개별 가이드에는 ‘Research Guide’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관성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방문 이용자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내에서 그리고 도서관간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찍이 Dunsmore(2002)는 주제가이드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주제가이드’의 단일한 사용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보통 수백 개 이상의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대학에 비해 국내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경영학, 법학, 약학과에 대해 세부 주제가이드를 제공하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도서관에서 주로 소수의 선정된 학과를 단위로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이드’보다는 ‘학과별 가이드’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고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2.2 접근성

주제가이드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주제가이드까지의 경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제가이드가 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자서비스’ 혹은 ‘교육연구지원’ 메뉴 밑에서 한두 번의 클릭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제가이드 페이지에 접근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최종 정보자원 리스트를 도달할 때까지 총 5번의 클릭을 해야 하는 기관도 있어서 경로의 길이를 줄이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주제가이드의 존재는 확인 가능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교내 이용자만이 접근가능하고 외부 이용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대학에 근무하는 사서와 전화 통화를 실시하였으며 이하의 데이터는 통화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4.2.3 포맷의 일관성

분석 대상 14개 대학 중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13개 대학에서 하나의 포맷을 모든 주제가이드에 적용하여 일관성있는 외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경희대, 포항공대 등 4개 대학은 LibGuides를 도입하고 있었고 기타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템플릿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포맷을 사용한다고 해도 서울대학교와 같이 각 가이드 페이지의 메뉴까지 엄격하게 같은 포맷을 적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송실대와 같이 기관 고유의 일정한 외형을 갖추면서 각 가이드별로 화면 구성은 융통성을 갖도록 한 곳도 있었다. 연세대학교는 가이드에 따라 게시판 형태와 메뉴 탭 형태 두 가지 포맷

을 사용하고 있었다. 메뉴 탭 형태의 포맷은 각 탭마다 학술 DB, 학술 저널, 소장자료 등 유형별로 정보자원을 나열하는 주제 서지의 형태이고 게시판 포맷은 사서가 작성한 이용자 교육 자료를 이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주제가이드의 일관성과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메뉴 탭과 게시판을 가이드에서 함께 운영함으로써 주제 서지를 통한 정보자원의 접근과 이용자 교육을 동시에 단일 웹페이지 내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4 최신성

최신성은 갱신주기, 갱신항목 표기 여부, 최종갱신일로 분석하였다. 갱신주기와 갱신항목을 명기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최종갱신일만 9개 대학에서 표시하고 있었다. 물론 한 대학 내에서도 주제가이드마다 최종갱신일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거의 모든 대학들이 대부분의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2012년에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 최신성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LibGuides 시스템은 각 가이드마다 자동으로 최종갱신일이 명시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도서관들은 모두 최종갱신일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5 키워드 검색엔진 제공

총 8개 도서관이 브라우징 검색과 키워드 검색 두 가지 방식을 허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5개 도서관은 검색 엔진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브라우징만 가능하였다. LibGuides를 활용하고 있는 4개 도서관은 모두 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검색 엔진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자체 개발한 템플릿을 활용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검색 엔진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검색엔진마다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정보자원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이다(〈표 3〉 참조). 이화여대 온라인 주제가이드는 블로그 포맷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검색엔진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입력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팅이 검색되고, 경희대는 주제가이드 하부 웹페이지들이 검색되며, 연세대의 경우에는 특정 주제가이드와 주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내 도서관의 소장 자료 목록 검색 시스템을 검색하였다. 예를 들어 법학 주제가이드 페이지의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법학 도서관 온라인 목록 시스템에 연결되어 법학 도서관 소장 자료가 검색되었다. 각 도서관의 온라인 주제가이드 내에서 제공되는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정보자원의 유형은 〈표 3〉과 같다.

문제는 온라인 주제가이드 내에 존재하는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정보자원의 유형과 범위, 검색 팁 등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쉽다는 것이다. 때로는 화면 상단에 도서관 온라인 목록 시스템의 검색 박스가 존재하고 하단에 주제가이드 검색 박스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제가이드 내에서 운영되는 각 검색엔진이 무엇을 검색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4.2.6 사서정보

총 12개의 도서관에서 사서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 등 최소한 한 가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중 4대학은 사서의 사진까지

〈표 3〉 각 검색엔진의 결과에 포함되는 정보자원의 유형

학교명	검색하는 정보자원의 유형
경희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bGuides 시스템 자체 검색 시스템 - 특정 가이드 내에서 검색 - 모든 가이드 검색 -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부산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bGuides 시스템 자체 검색 시스템 - 특정 가이드 내에서 검색 - 모든 가이드 검색 • 학술 DB 검색 시스템
성균관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숭실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에종 서비스 웹사이트 내 하부 페이지 검색
연세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된 분관 도서관의 소장자료 검색
이화여자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로그 포스팅 검색
인하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space@inha 검색 • 구글 Scholar 검색
포항공과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bGuides 시스템 자체 검색 시스템 - 특정 가이드 내에서 검색 - 모든 가이드 검색 -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구글 검색
한국과학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bGuides 시스템 자체 검색 시스템 - 특정 가이드 내에서 검색 - 모든 가이드 검색 -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구글 검색 • 학술 DB 검색 시스템(예: Web of Science)

지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친밀성을 높이고 있었다. 반면에 나머지 2개 대학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담당자 혹은 작성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주제가이드 페이지나 주제가이드 내의 특정 정보자원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서의 연락처를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서 따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4.2.7 주제의 다양성

조사된 대학도서관의 개별 온라인 주제가이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단과대학 혹은 학과 단위가 대부분이었고 학과 내에서 보다 세분화

된 주제 분야에 대해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화여대 1곳에 불과하였다. 한 대학에서 제공하는 주제가이드의 수가 5개 이하인 곳은 2개 도서관(14%), 6~20개인 곳은 6개 도서관(43%), 그리고 20개 이상인 곳은 6개(43%)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수의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4개 분야에 대하여 구독 중인 전자저널과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56개의 주제가이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은 '국어국문', '물리학' 등

과 같이 학과 단위의 주제가이드와 더불어 법학, 경영학, 약학 분야에서는 '노동법', '지적재산법', '헌법', '마케팅', '회계' 등 세부 주제에도 개별적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다. 몇 개 대학의 주제가이드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일반적으로 주제사서의 수가 많을수록 제공되는 주제가이드의 수가 많은 경향이 있으나 한국과학기술원과 같이 2명의 사서가 14개의 주제가이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각 사서가 담당하고 있는 주제가이드의 수는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도서관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려 131개에 달했으며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주제가이드는 영어영문학과 경영학으로 10개 대

학에서 중복되어 제공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생명공학이 9개 대학, 사학, 법학이 8개 대학, 철학, 국문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 화학, 전자공학이 7개 대학에서 제공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이러한 주류 학과와는 달리 미학, 여성학, 주거환경학, 호텔경영학, 스페인·중남미학과 등과 같이 소수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학과들은 각각 1개 대학에서만 온라인 주제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었다.

4.2.8 정보자원의 종류

조사 대상 주제가이드들의 내용 구성상 핵심 자원은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그리고 인쇄물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모든 도서관

<표 4> 주제가이드의 종류 사례

대학명	주제가이드의 종류
숭실대	영어영문학과, 평생교육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벤처 중소기업학과
서강대	국어국문학, 사학, 철학, 종교학, 영미어문, 미국문화, 독일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 사회학, 정치외교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법학
울산대	국어국문학부, 영어영문학부, 일본어·일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프랑스어·프랑스학과, 스페인·중남미학과, 역사문화학과, 철학과, 교육대학원(교육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부, 간호학과, 기계공학부, 조선해양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전기공학부, 생명화학공학부, 첨단소재공학부, 건설환경공학부, 체육학부, 아동가정복지학, 주거환경학, 식품영양학, 의류학전공, 건축학부, 음악학부, 미술학부, 디자인학부

<표 5> 정보자원의 유형별 현황

세부항목	수록 도서관 수	비율(%)
데이터베이스	14	100.0
전자저널	14	100.0
인쇄물	14	100.0
웹사이트	12	85.7
최신/인기 학술논문	4	28.0
공개강의/E-Learning	4	28.5
전자책	3	21.4
시험정보/소식	1	7.1
교내출판물	1	7.1

들에서 이 세 종류의 정보자원을 소개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자주 다뤄지는 자원의 유형은 웹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전자책, 공개강의 자료, 시험정보, 교내출판물, 최신/인기 학술논문을 제공하는 도서관들도 소수 있었다. 각 주제 분야의 최신 혹은 인기 학술논문을 제공하는 기능은 관련 전자저널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자원을 소개하는 간접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신속하게 개별 학술논문을 획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최신/인기 학술논문을 제공하는 4개 도서관은 모두 Ex Libris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LibGuides 시스템에 삽입함으로써 자동으로 최신/인기 학술논문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대학이 전자자료와 인쇄물을 망라하여 다양한 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통합성 정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9 배열체계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는 모든 조사 대상 도서관에서 정보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예: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웹사이트, 전자책) 배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도서관

은 각 유형 아래에서 가나다(알파벳순)으로 정보자원을 배열하고 6개 대학의 경우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자원을 배열하고 있어서 특정한 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때 신속한 자원 탐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유형별 자원 배열체계 이외에 DDC를 기준으로 도서관 소장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각 분류번호를 클릭하면 미리 마련되어 있는 웹페이지로 링크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온라인 목록 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되어 해당 분류번호에 속하는 모든 도서관 소장 자료가 화면에 출력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 <표 6>에 보이는 '경영학부 주제가이드'의 DDC 표에서 657(계산, 회계, 부기)을 클릭하면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포함한 5,255건³⁾의 도서관 소장 자료가 검색되고 이화여대 '마케팅 주제가이드'에서 658.8(마케팅)을 선택하면 4,226건의 도서관 소장 자료가 검색된다. 물론 이 검색 건수는 온라인 목록 시스템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게 된다.

DDC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신라대도 한 주제 가이드 내에서 정보자원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특정 유형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온라인 목록 시

<표 6> 서울대 경영학부 주제가이드 내 DDC 분류체계의 일부

600 응용과학 Applied Science
650 경영과 기타서비스 Management and Other Services
657 계산, 회계, 부기 Calculation, Accounting, Bookkeeping
658 일반경영 General Management
658.1 재무관리 Organization & finance
658.2 시설, 설비관리 Plant management

3) 2012년 11월 11일 현재 기준.

시스템이 검색 결과가 화면에 출력된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도서관 소장 자료를 망라하여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자료가 한꺼번에 소개되어서 이용자들이 검색 결과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선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4.2.10 이용자 교육

조사 대상 도서관 중 신라대를 제외한 모든 도서관에서 개별 정보자원에 대한 간단한 주석을 제공하고 있어서 정보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에 대한 선택을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신라대는 전술하였듯이 도서관 시스템에서 자동 검색되는 서지사항이 화면에 보여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서가 따로 주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간단한 정보자원에 대한 설명 이외에 부가적인 이용자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도서관은 모

두 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기관이 도서관 이용법, 참고문헌 인용법 등 주제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고 주제 분야에 따른 정보 탐색 교육을 제공하는 곳은 7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제 중심의 정보 탐색 교육을 제공하는 곳 중 4개 대학이 각 주제 분야에 해당하는 DDC 분류번호를 소개하면서 DDC를 이용한 소장 자료 검색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고 나머지 3개 대학에서만 보다 심층적인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의 경영/경제학 주제가이드에서는 해외 기업의 재무정보 조사방법, 기업 임원진/CEO 자료 조사, 전세계 펀드 기준가 조회, 국내 기업의 재무정보 조사 등 경영/경제 분야에 특화된 연구 조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표 8> 참조).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특정 주제 관련 정보원

<표 7> 이용자 교육 내용

세부항목	자원에 대한 주석	주제별 이용자 교육	일반 이용자 교육
도서관 수	13	7	6
비율(%)	93%	50%	43%

<표 8> 국내 기업의 재무정보 조사 페이지의 일부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 기업은 일정 규모의 이상의 기업인 경우,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상장기업 -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 외감기업(자산규모 70억원 이상) - 감사보고서 제출).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진 보고서는 전자공시(<http://dart.fss.or.kr/>)에 게시된다. 이 수치는 원본 소스로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공되어 제공된다. 그러므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회한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될 때는, 가장 신뢰성있는 소스인 금융감독원의 공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재무제표 수치들을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이다.

1. 웹 기반 - 웹페이지 접속만으로 이용가능

- a. 상장협의회 TS2000(바로가기) - 상장 기업만 조회가능, 동시사용자 제한없음
- b. KisLine(바로가기) - 상장 + 외감 + 일반기업까지 조회가 가능하여 가장 넓은 커버리지, 동시접속 2인만 가능

에 대한 탐색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법을 설명할 때에도 해당 주제 분야의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학 주제가이드에서 도서관 온라인 목록 시스템을 설명할 때에는 '심리 검사'라는 키워드 검색을 실례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케팅 주제가이드에서는 같은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소비자 행동론'을 실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4개 대학은 정보자원에 대한 간단한 주석 외에 아무런 부가적인 이용자 교육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온라인 주제가이드 개선 방안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조사 대상 100개 대학 도서관 중 불과 14개 도서관만이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6개 도서관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주제가이드 구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주제전문사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제전문사서의 부재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개발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제전문사서제를 실시하고 있는 36개 기관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개 기관만이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온라인 주제가이드에 대한 주제전문사서들의 인식이 매우 낮거나 주제전문 서비스의 순위에서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개발이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 대학도서관 여건상 세분화된 주제를 담당할 인

력이 부족하여(심원식, 2009) 주제사서제가 단과대학 혹은 학과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리에중 서비스의 형태로 발달하면서 주로 장서개발 및 관리, 교육, 참고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초점이 맞춰지고 주제가이드와 같은 웹페이지 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을 반영한다 하겠다(최상기, 안인자, 2009). 반면에 국외 대학도서관에서는 주제별 웹페이지 개발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최상기, 안인자, 2009; 최상희, 2010) 향후 국내 대학도서관들도 주제 기반 웹페이지 개발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주제전문사서제를 실시하고 있고 주제 담당 인력이 확보된 도서관의 경우 온라인 주제가이드 개발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25개 도서관에서 우선적으로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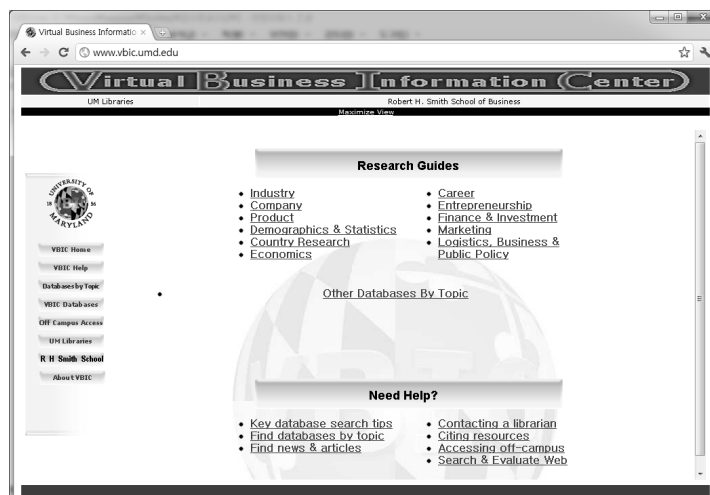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온라인 주제가이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내용 구성면에서 볼 때 접근성, 포맷의 일관성, 정보자원의 통합성 영역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주제의 다양성, 이용자 교육, 키워드 검색엔진 제공 영역에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제가이드의 핵심은 주제별로 서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내 온라인 주제가이드가 대학이나 학부 단위처럼 대주제 분야로 되어 있어서 보다 세분화된 주제 수준에서의 정보자원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다. 서울대와 같이 DDC를 이용하여 한 주제 내에서 세분화된 주

제 접근을 가능하게 한 대학이 있지만 문제점은 각 DDC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소장 자료가 망라적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 분야의 핵심적인 정보자원만을 선별하여 제공한다는 주제가이드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DDC가 과연 적절한 세부 분류체계인가 하는 것이다. DDC에 의한 정보자원의 배열은 자료 중심적이고 주제가이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강의 과제별 정보를 원하는 학생들의 인지모델과는 맞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대로 연구나 강의 과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러한 주제 선정 방식의 적합한 예로, Abels, White, Kim(2007)은 메릴랜드 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도서관의 경영학 주제 포털을 구축하면서 여러 경영학 교과서의 목차와 각 과목의 학업계획서에서 제시된 과제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핵심이 되는 주요 연

구 과제와 관련된 상위 주제 카테고리들과 각 카테고리별 하위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주제 선정 방식은 경영학 수업 과목과 연계하여 정보자원을 제공하면서도 과목마다 개별적으로 가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메릴랜드 대학 경영학 주제 포털의 구성을 보면 <그림 1>과 같이 11개 상위 주제 카테고리(Industry, Company, Product 등)가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5~15개의 하위 주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왼쪽 메뉴 중 하나인 'Databases by Topic'에서 114개의 세부 토픽과 해당 정보자원을 링크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광범위한 주제에서 세밀한 주제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원하는 정보자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학문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해당 강의가 속한 적절한 학문 주제를 선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조사 대상 온라인 주제가이드 대부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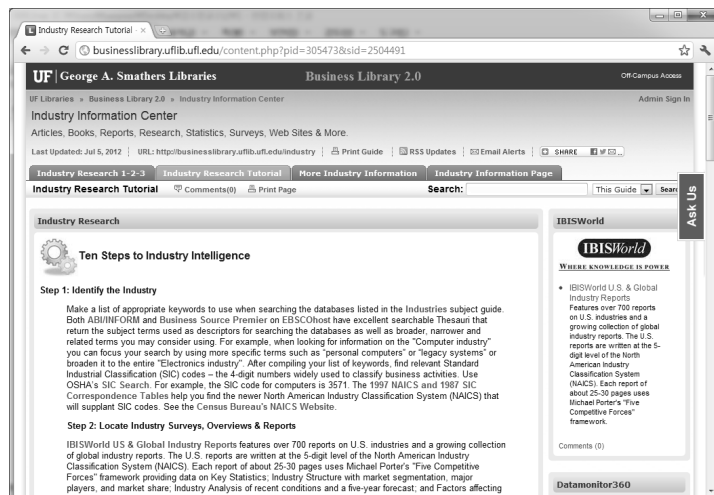
<그림 1> 메릴랜드 대학교 VBIC 홈페이지
출처: <http://www.vbic.umd.edu/>

정보자원 목록과 각 정보자원에 대한 간단한 주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보다 심층적인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법과 범용 데이터베이스의 탐색 방법 외에 주제에 특화된 이용자 교육 자료를 주제가이드 내에서 제공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요구를 가진 이용자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제가이드에서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주제에 특화된 이용자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7곳(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에서 사서들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플로리다 대학교 경영학 주제가이드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튜토리얼을 활용하여 정보자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학 주제 분야의 연구방법에 대한 풍부

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림 2>에 보이는 'Industry Research Tutorial'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수행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중간에 관련 정보자원의 링크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세스 배열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이 주제 분야의 연구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에게 연구방법과 정보자원을 동시에 소개하는 교육적 효과를 낳고 있다. 이 대학 주제가이드에서 제공되는 튜토리얼들은 대부분 교육 프로세스 배열체계를 차용하고 있는데 초보자들이 튜토리얼을 통해서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중에 이 주제가이드를 다시 방문할 때에는 튜토리얼을 건너뛰고 바로 알파벳순 정보자원 목록 페이지로 가서 원하는 정보자원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주제가이드는 일반적인 도서관 이용법뿐만 아니라 주제 분야에 따른 정보자원에 대한 탐색 방법, 연구 조사 방법 등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주제가이드에서 발견한 자



<그림 2> 플로리다 대학교 Industry Research 페이지
출처: <<http://businesslibrary.uflib.ufl.edu/content.php?pid=305473&sid=2504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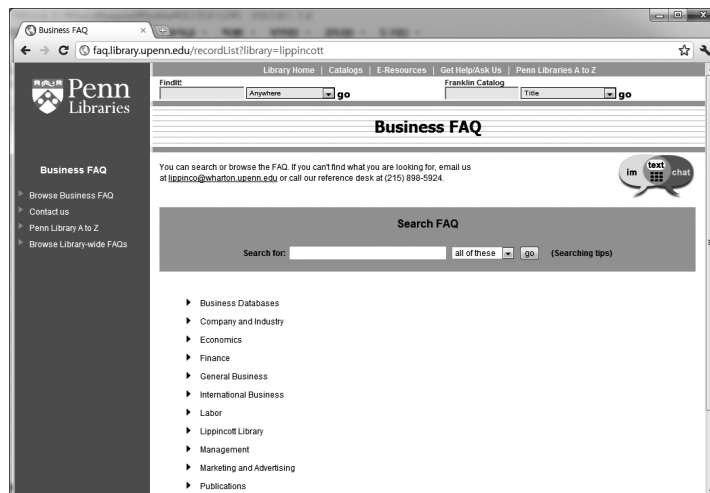
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주어진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주제가이드의 수가 많거나 각 주제가이드에 포함된 정보자원의 양이 많을 경우에 키워드 검색이 효율적인 탐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주제가이드만을 위한 키워드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유용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많은 도서관들이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정보자원의 유형은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6개 기관(43%)만이 전체 가이드 검색 혹은 특정 가이드 내 웹페이지 검색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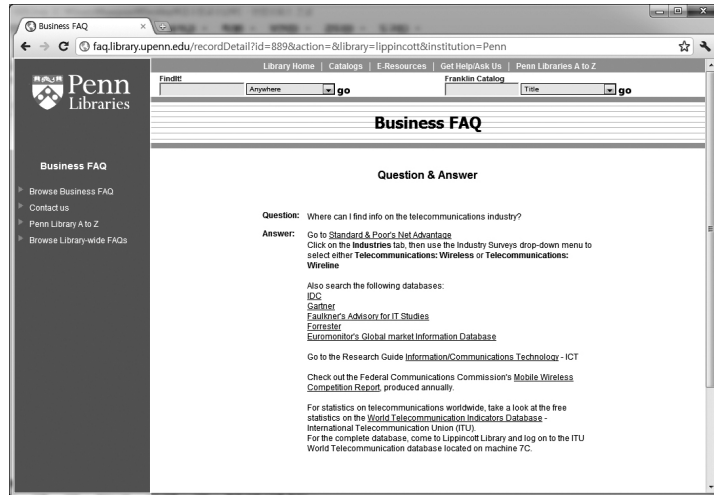
국내 도서관에서 발견되지 않은 검색 시스템의 종류로는 정보자원 추천 시스템이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리핀코트 도서관(Lippincott library)에서 자체 개발한 Business FAQ 시스템을 예로 들면, 이 시스템은 경영학 분야의 정보자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검색할 수 있는 지식기반 시스템으로 홈페이지에는 14개 상위 주제 카테고리 와 500여 개의 질문이 나열되어 있다(〈그림 3〉 참조). 예를 들어, '통신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자원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가 'telecommunications industry'라고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Company and Industry'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유사한 질문("Where can I find info on telecommunications industry?")을 클릭하면 이 시스템은 〈그림 4〉에 서와 같이 해당 질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정보자원을 소개하고 간단한 탐색 전략을 제시한다.

이 검색 시스템의 장점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정보자원을 추천해 준다는 것으로 이용자가 브라우징 기반 검색에 의존하여 스스로 적합한 정보자원을 선택해야 하는 기존 주제가이드의 약점을 보완해준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주제가이드에서도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시스템과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 외에 가이드



〈그림 3〉 펜실베니아 대학교 Business FAQ 시스템
출처: 〈http://faq.library.upenn.edu/recordList?library=lippincott〉



〈그림 4〉 펜실베니아 대학교 Business FAQ 시스템 검색 결과
출처: 〈http://faq.library.upenn.edu/recordList?library=lippinco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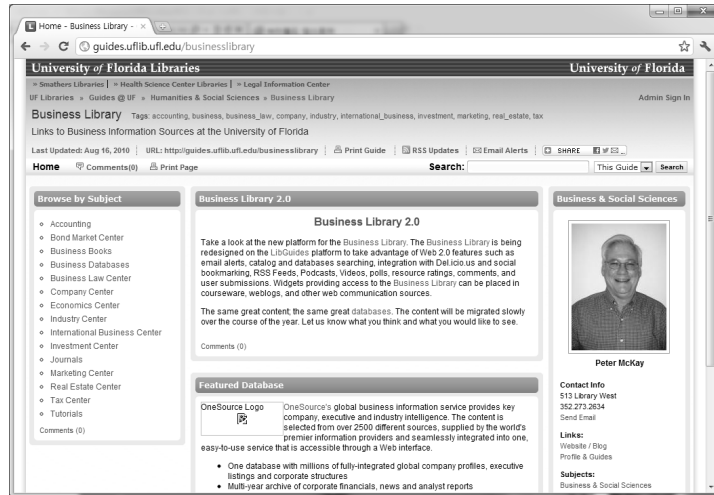
검색 시스템과 정보자원 추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키워드 검색엔진을 선호하고 브라우징 기반 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주제가이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 즉, 포맷의 일관성, 사서정보 표시, 검색 엔진 운영, 업데이트 날짜 표시, 최신/인기 논문 제공 등의 요건을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주제가이드 웹페이지를 만든 경우에 더욱 심각하였다. 이와 반대로 LibGuides라는 상용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경우에는 시스템 내에 이러한 기능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어서 사서가 일일이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당 내용이 제공되고 있었다. 따라서 특히 사서의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에 이와 같은 상용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서의 시간을 절약하고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LibGuides를 기반으로 개발한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플로리다 대학교 도서관의 '경영학' 주제가이드의 화면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가운데 칼럼은 이 주제가이드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담당 사서의 사진, 이름, 연락처가 기술되어 있고 왼쪽에는 경영학 관련 세부 주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상단에는 태그, 검색 엔진, RSS 업데이트 정보 등 LibGuides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포맷은 플로리다 대학교 도서관의 다른 주제가이드에도 일관성있는 포맷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제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로써 개별 도서관에서 각종 주제가이드를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Morris & Grimes(2000)의 설문



〈그림 5〉 플로리다 대학교 경영학 주제가이드 홈페이지
출처: 〈http://guides.uflib.ufl.edu/businesslibrary〉

조사에서 주제가이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서들의 시간 부족임이 드러났으며 이들은 도서관간의 협동 작업을 통한 주제가이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숙경(2010)도 온라인 주제가이드⁴⁾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협동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주제가이드의 준비가 촉진되는 것 외에도 양질의 다양한 주제가이드가 표준적인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별 도서관의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고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간의 협동체제 구축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영어영문학, 생명공학, 국문학, 사학, 법학, 경영학, 수학, 물리학 등 다수의 도서관들이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주제가이드들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아직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하

고 있는 많은 대학에서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협동 작업을 통해 이러한 주제가이드들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공유된다면 많은 대학들이 개별적으로 주제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각 도서관들은 절약한 자원을 소속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주제가이드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온라인 주제가이드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단순한 정보자원의 목록을 뛰어넘어서 신속한 정보자원への 접근, 주제에 특화된 이용자 교육, 사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제전문사서는 전공과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정보자원을 선택하여 주제서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제서지는 관련 주제에 해당하

4) 박숙경은 원문에서 '패스파인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제가이드'로 바꿈.

는 정보자원을 한 자리에 배치시킴으로써 주제별 정보자원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고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온라인 주제가이드는 단순한 정보목록을 넘어서 주제 중심의 이용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과 연구 과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이용자와 사서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제공하고 참고정보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시킨다. 온라인 주제가이드는 이러한 세 가지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제 전문 서비스의 단일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대학도서관 환경에서 온라인 주제가이드 서비스에 대한 개발 및 구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구축을 활성화시키고자 국내 100개 대학 홈페이지를 조사하였으며 이 중 14개 기관만이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주제전문사서들의 주제 기반 웹페이지 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확인된 14개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운영 현황과 내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온라인 주제가이드가 대학이나 학부 단위처럼 대주제 분야로 되어 있어서 보다 세분화된 주제 수준에서의 정보자원 접근을 가능하게 할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개발이 절실하

다. 세분화된 주제에 대한 가이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별 학과 내 이용자들의 요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인지 모델을 고려하여 강의 혹은 과제 중심으로 주제를 개발한다.

둘째,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자료 이용법 이외에 세분화된 주제에 따른 맞춤형 이용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활용 능력과 연구 과제 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주제가이드의 수가 많거나 각 주제가이드에 포함된 정보자원의 양이 많은 도서관의 경우에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 주제가이드만을 위한 키워드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온라인 주제가이드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LibGuides와 같은 도서관 가이드 상용 시스템을 활용한다.

다섯째,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도서관간 협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개별 도서관의 부족한 자원을 해결하고 양질의 다양한 주제가이드를 표준적인 형태로 제공한다.

국내에서 아직 소수의 대학도서관들만이 주제전문사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도서관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선도기관의 방문 등을 통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원식, 2009).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제전문사서제를 준비하거나 실행 중인 사서들이 주제 전문 서비스의 한 방편으로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의 주제가이드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속 연구로는 현재 주제전문사서제를 실시

하면서 온라인 주제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사서들의 온라인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과 온라인 주제가이드 개발 저해 요인, 향후 계획 여부 등에 분

석하고 실제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실제 이용 현황 분석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유용성 평가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참 고 문 헌

- 김태경 (2005). 특정주제중심의 도서관 이용자교육. 한국비블리아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논문집, 제12집, 51-64.
- 노영희, 노동조, 안인자, 김성진 (2008). 주제전문서비스 운영실태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97-123.
- 박숙경 (2010). 도서관의 효율적 정보봉사를 위한 패스파인더의 활용 사례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심원식 (2009). 주제전담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41-560.
- 이미화 (2010). 강의별학술정보페이지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137-163.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1.137>
- 일본도서관정보학회 용어사전편집위원회 (2011). 문헌정보학 용어 사전. 오동근 역. 대구: 태일사.
- 정재영 (2009).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제 운영방안 연구: 3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119-136.
- 최상기 (2004). 웹 학술정보의 주제게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2), 177-194.
- 최상기, 안인자 (2009). 대학도서관 리에종서비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167-182.
- 최상희 (2010).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연구지원 가이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1), 229-248.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1.229>
- 함연금, 박준식 (2008). 중국 대학도서관 가상참고서가의 구축현황과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147-167.
- Abels, E. G., White, M. D., & Kim, S. (2007). Developing subject-related Web sites collaboratively: The virtual business information center.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3(1), 27-40.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5). Library course pages. *Library Technology Reports*, 41(3), 33-43.

- Brazzeal, B. (2006). Research guides as library instruction tools. *Reference Services Review*, 34(3), 358-367.
- Canfield, M. P. (1972). Library pathfinders. *Drexel Library Quarterly*, 8(3), 287-300.
- Courtois, M. P., Higgins, M. E., & Kapur, A. (2005). Was this guide helpful? Users' perceptions of subject guid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3(2), 188-196.
- Cox, A. (1996). Hypermedia library guides for academic libraries on the world wide web. *Program*, 30(1), 39-50.
- Dahl, C. (2001). Electronic pathfinders in academic libraries: An analysis of their content and for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3), 227-37.
- Dunsmore, C. A. (2002). Qualitative study of Web-mounted pathfinders created by academic business libraries. *Libri*, 52(3), 137-156.
- Jackson, R., & Pellack, L. J. (2004). Internet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An analysis of contents, practices, and opinions. *Ref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 319-327.
- Kapoun, J. M. (1995). Re-thinking the library pathfinder. *College & Undergraduate Libraries*, 2(1), 93-105.
- Kim, S., & DeCoster, S. (2011). Organizational schemes of information resources in top 50 academic business library websites.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7(2), 137-144.
- Lyons, C., & Kirkwood, H. (2009). Business library web sites revisited: An updated review of the organization and content of academic business library web sites.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14(4), 333-347.
- Morris, S. E., & Bosque, D. D. (2010). Forgotten resources: Subject guides in the era of Web 2.0.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27, 178-193.
- Morris, S. E., & Grimes, M. (2000).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Library Computing*, 17(3), 213-216.
- Morville, P. S., & Wickhorst, S. J. (1996). Building subject-specific guides to internet resources. *Internet Research: Electronic Networking Applications and Policy*, 6(4), 30-32.
- Ouellette, D. (2011).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A user-centred study of uses and perceptions.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 Library Sciences*, 35(4), 436-451.
- Reeb, B., & Gibbons, S. (2004). Students, librarians, and subject guides: Improving a poor rate of return.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4, 123-130.
- Staley, S. M. (2007). Academic subject guides: A case study of use at San José State Univers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2), 119-140.
- Sowards, S. W. (1998). A typology for ready reference Web sites in libraries. *First Monday*,

3(5). Retrieved November 17, 2012, from
www.firstmonday.org/issues/issue35/sowards/index.html

- Tchangalova, N., & Feigley, A. (2008). Subject guides: Putting a new spin on an old concept. *Electronic Journal of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 9(3), Retrieved November 17, 2012, from http://southernlibrarianship.icaap.org/content/v09n03/tchangalova_n01.html
- Tennant, M. R., Cataldo, T. T., Sherwill-Navarro, P., & Jesano, R. (2006). Evaluation of a liaison librarian program: Client and liaison perspectives. *Journal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94(4), 402-409.
- Warwick, C., Rimmer, J., Blandford, A., Gow, J., & Buchann, G. (2009). Cognitive economy and satisficing in information seeking: A longitudinal study of undergraduate inform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0(12), 2402-2415.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 Choi, Sanghee (2010). Analysis on online research guides of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229-248.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1.229>
- Choi, Sangki (2004). A Study on Building Subject Gateway for Web Academic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2), 177-194.
- Choi, Sangki, & Ahn, Inja (2009). A study on the operational plan of liaison service at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167-182.
- Chung, Jae-Young (2009). A study on operational plan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at academic libraries: Focus on case analysis of three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119-136.
- Japanese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1).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ctionary*. (Oh, Dong-Geun, Trans.). Daegu: Taeil.
- Kim, Tae-Kyung (2005). Subject-specialized user instruction. *Proceedings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05*, 12, 51-64.
- Lee, Mee-Hwa (2010).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library course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1), 137-163.

<http://dx.doi.org/10.3743/KOSIM.2010.27.1.137>

- Noh, Younghee, Noh, Dong-Jo, Ahn, In-Ja, & Kim, Sung-Jin (2008). An analysis of subject specialized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97-123.
- Park, Sook-Kyung (2010). Analysis of the use of pathfinders for effective library servi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Shim, Wonsik (2009).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41-560.
- Xian, Yan-Jin, & Park, Joon-Shik (2008). On the virtual reference shelves of Chinese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147-167.

